

# 서울 지하철 당기순손실 1조

## ‘평면환승’으로 적자 해소 추진

서울교통공사, 수도권 노선까지 운영  
운행 위험성·유지 관리 비용 절감  
서울 시계 외 노선, 평면 환승 원칙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서울 지하철이 1조원이 넘는 적자에 허덕이자 서울시가 유지관리 비용이 적은 평면환승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면환승은 지하철 환승 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맞은편 플랫폼을 통해 환승할 수 있는 구조다. 차량고장으로 인한 운행 상의 위험성을 줄여주고 유지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그간 서울교통공사는 관할 구역이 아닌 경기·인천 등 수도권 노선까지 운영해왔다. 시와 공사는 연장 노선 운행 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시설물 개선 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협조하지 않아 시설 개선은 일부에 그쳤다.

이로 인해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놓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손실이 1조954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5254억원 대비 200% 증가한 것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매년 5000억원 이상 영업 손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올해 연말에는 약 1조5991억원의 자금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가중되는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해 늘어나는 운영 부담은 고려되지 않은 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연장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현재 5호선 하남선, 7호선 연장선(인천, 경기북부), 8호선 별내선, 4호선 진

접선 등에서 서울 시계 외 노선 연장을 추진 중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 서울 시계 외 노선은 ‘직결 연장’이 아닌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용객은 오랜 시간 걸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빠르게 환승할 수 있고, 차량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도 평면 환승을 통해 전 노선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평면 환승 원칙에 맞춰 ▲안전 운행을 위해 사전 필수시설 및 시스템 구축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재정 부담 및 책임 강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경부고속도로 버스차로’ 단속시간 연장

서울시, 익일 새벽 1시로 연장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익일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만 통행 가능하며, 실제 탑승 인원은 6명이 넘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한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

량 정체로 차선 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된 운전자도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단속 적발시 횡수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전용차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라며 “단순히 운행구간의 착오, 차선 오인 등의 사유로 중복적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 배포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약 63.6㎢로 여의도 면적의 약 180배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그간 가로구역별로 지정된 건축물 높이 기준이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양해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을 확인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만들어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올해 공무원 3662명 뽑는다

전년도 3219명 비교 443명 증가  
임용시험 원서 접수 내달 2일 시작

서울시는 올해 공무원 공개경쟁·경력경쟁 채용 선발 인원을 3662명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3219명과 비교해 443명 증가한 수치다.

올해 채용하는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3122명, 경력경쟁 540명이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2240명 ▲

기술직군 1406명 ▲연구직군 16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348명 ▲8급 292명 ▲9급 3006명 ▲연구사 16명이다.

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183명(전체 5%), 저소득층 282명(9급 공채 10%), 고졸자 52명을 채용한다.

제1회 9급 공개경쟁과 경력경쟁 임용시험(3246명)의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다. 서울시 인터

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올해도 타 시도와 동일한 6월 5일에 실시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14일이다.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9월 29일이다.

제2회 7급 공개경쟁과 경력경쟁 임용시험(416명)은 6월 중 공고될 예정이다. 8월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0월 16일에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김현정 기자

# 인프라 취약 도시에 ‘스마트 기술’ 접목

서울시, 지역문제 해소 앞장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지에 각 최대 12.5억 투입

서울시는 인프라가 취약한 도시재생 뉴딜지역의 주차장, 횡단보도, 골목길에 스마트 기술을 입혀 지역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 여건을 스마트기술로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목3동은 ▲비대면 24시간 무인마트 도서관 ▲개비시장 스마트 안심보행 서비스 ▲안전한 등굣길 프로젝트 ▲스마트 분리수거 서비스 ▲스마트 집수리 원스톱 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이다.

독산동 우시장에서는 ▲약취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빔물받이 서비스 ▲안전하고 밝은 스마트 특화거리 조성 ▲할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등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신월3동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제로화 ▲스마트 주차 공유시스템 ▲인공지능 재활용분리수거함 ▲태양광 발전기·모빌리티 충전소 설치 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에도 관내 25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내달 12일까지 서울시 재생정책과로 접수(사업지의 자치구가 신청)하면 된다. 최종대상지는 국토부가 4월에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지에는 각 최대 12억 5000만원(국비 5억원, 사·구비 7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김현정 기자

# 파주시 감악산 정상 와이파이 구축

파주시는 올해 감악산 정상 및 감악산 출렁다리 관광지 주변을 포함한 50개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월릉산 정상에 와이파이를 개통한 데 이어, 올해는 감악산 정상에도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시는 이를 위해 감악산 정상 현장 답사를 완료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와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실시단계 중이다.

시는 2019년 파주시청사와 전통시장에, 2020년 버스정류장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파주시 감악산, 문화관광지에서도 시민들이 인터넷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 고양시, 환경교육도시 위한 계획 수립

제1차 고양시 환경교육계획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추진

고양시가 국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제1차 고양시 환경교육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환경교육도시로의 도약을 시작한다.

‘제1차 고양시 환경교육계획(2021~2025년)’은 지난 1월 발표된 환경부의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의 기초를 반영하는 한편, 환경교육도시를 목표로 고양시가 새롭게 추진할 환경교육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고양시의 이번 환경교육계획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친환경도시, 실천하는 시민’이라는 비전 아래 ▲환경교육 기반 강화 ▲공교육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4대 영역과 15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



고양시가 국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제1차 고양시 환경교육계획(2021~2025년)’을 수립한다. /고양시

로 대응하고 환경교육 대중화, 시민 환경의식 함양 등을 선도하는 대표 지자체로서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시는 한강 하류 수변도시로서 장항습지, 비무장지대 등 천혜자원을 보전하고 가꾸어갈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며 생활 속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2월 10일 (수) 음력 : 12월 29일

수도권 날씨 -7 ~ 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뽀 / 07:27 | 해집 / 18:06

백령도 3/7, 파주 -4/8, 서울 -1/8, 인천 2/7, 수원 0/8, 평택 -3/8, 연천 -2/8, 동두천 -2/8, 가평 -4/7, 양평 -3/7, 용인 0/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